

강진군 지난해 합계출산율 전국 3위

1.64명...전국 평균 2배 이상 3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 유지 출산·육아 지원정책 등 효과

강진군이 국가통계포털이 발표한 2025년 출생 통계(잠정)에서 합계출산율 1.64명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강진군은 2024년 합계출산율 1.61명을 기록해 전국 평균(0.75명)의 두 배를 훌쩍 웃돌았으며, 특히 올해 잠정 통계에서도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명을 초과한 지역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과의 중심에는 체감도 높은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있다. 강진군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강진군 육아수당을 통해 출생 순위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매월 60만원을 최대 7년간 지급하고 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육아수당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며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특히 강진군은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지원체계를 운영하며 촘촘한 정책을 통해 부모들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산후조리비를 기준 154만원에



강진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 모습. <강진군 제공>

서 160만원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출산율 상승이라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강진군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청년층 유입을 위한 주거·일자리 연계 정책을 병행하며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정주 기반 확충이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상승의 구조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AI 데이터센터 조성 등으로 생활인구 확대, 출산·육아 진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앞으로 5년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출산·육아 정책과 정주 여건 개선, 산업 육성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인구소멸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나주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공모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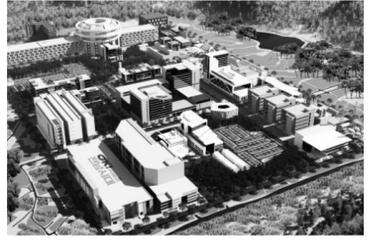
국·도비 25억8000만원 확보

나주시가 고용노동부와 전남도가 주관한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25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30억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지역 미래 전략산업인 에너지 분야 기업 성장과 신규 고용을 직접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약 500명 규모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와 나주전력기술교육원 등에서 양성한 전문 인력이 지역 기업에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나주시는 3월부터 '시제품 제작·사업화 지원',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재용·근로·지역정착 장려금 지급', '대한민국 에너지잡박람회 및 취업 위크숍 개최', '취업 연계 서비스·멘토 운영', '에너지 맞춤형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을 중심으로 조성된 에너지밸리와 인공태



나주 인공태양 핵융합 연구시설 예상 조감도.

양 연구시설, 강소연구특구 등과 연계를 강화해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고, 나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핵심 거점 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나주시는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에도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3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통해 안정적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함평군 축제관광부문 3연속 우수

함평군이 '2026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관광부문 대상을 받으며 축제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함평군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함평군이 축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은 전국의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경쟁력, 콘텐츠 우수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함평군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함평군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운영한 점과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축제 모델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축제 방문객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인근 상권과의 연계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 온 축제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경쟁력 있는 축제를 기획해 함평의 문화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군, 행안부 혁신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전국 82개 군단위 지방단체 1위

화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 역량, 혁신 성과 등 11개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다.

평가에서 화순군은 전국 82개 군(郡)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소통과 협력 기반 행정,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주민 체감형 정책을 적극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4시간 응급실 확대 운영 등 '응급 안전망' 구축 ▲'맘 편한 100원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스마트 원격 수도 검침' ▲고독사 고위험군 돌봄 사각 예방 '스마트 돌봄 플러그' 설치 사업 등이 주요 우수 사례로 꼽혔다.

구북읍 화순군수는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모든 공직자가 혁신 의지로 노력한 성과"라며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더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취약계층 자활 거점 '담양지역자활센터' 개관

생보자 등 안정적 일자리 기반 강화

자활 참여자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전용 공간인 담양지역자활센터가 문을 열었다.

담양군은 최근 자활사업 전용 공간인 담양지역자활센터의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담양군수를 비롯해 담양군의회의장, 도·군의원, 수탁기관장, 담양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자활근로 참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센터의 개관을 함께 축하했다.

담양지역자활센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7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취·창업 역량을 높이고, 자산 형성 지원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하고 있다.

센터는 2003년 설립 이후 여러 곳에 분산된 공간에서 사업단을 운영해 왔으며, 2020년부터는 담양군 소유 건물을 무상 임대해 사용해 왔다.

이후 시설 노후로 근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3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자활센터 신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상 2층 규모의 신축 건물을 조성하게 됐다.

신축 센터는 1층에 작업장과 휴게실, 세탁실을 배치하고, 2층에는 강당과 상담실, 직원 사무실을 마련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축 자활센터에는 병행동행 사업단과 청소용역 사업단인 굿크린사업단이 입주해 운영 중이며 센터 외부에서는 카페 청출어람과 세모, 도시락 사업단인 우미의 도시락, 가전제품 부품을 조립하는 셋별이품사업단, 오래된 사무용 가구를 수선·재판매하는 새활용 사업단 등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자활센터 개관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고, 자립을 통해 주체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활 참여자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unesco World Heritage site Getbol, Korean Tidal Flats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www.getbolworldheritage.org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 명: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합계 (㎡)	유산지역 (㎡)	완충구역 (㎡)
총면적(㎡)	2,030.03	1,284.11	745.92
서천갯벌	104.66	68.09	36.57
고창갯벌	74.11	55.31	18.80
신안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천시(605.24㎡)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의 약86%, 국가연안습지(2,482.00㎡)의 약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로부터 인정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대서양 연안의 외딴해 갯벌 신라 섬에 둘러싸인 절경을 보이는 한국의 갯벌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갯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자연이 선명한 아름다운 조수로 갯벌 위의 수채화

새들의 휴식처인 사위와 일반서식지

갯벌 위에 춤추는 무희, 사위

안반서식지 위에서 휴식하는 홍도요

전 세계에 유례를 찾기 힘든 특이퇴적층

모래-자갈 선형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한국의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먹이활동, 서식굴, 쾨머 써우, 염낭게,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 구출까지 7가지 콘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철새이동, 철새의 먹이활동, 서식굴,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짙둥어 영역싸움, 갯벌의 청소부 업날개, 염생식물의 역할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수업 현장!

VR로 떠나는 생생한 갯벌 탐험

직접 만지고 만드는 생태 교육 체험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성해보는 활동